

박종령, 2019, 「1950-60년대 미아리의 피혁(皮革)산업 연구」를 읽고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박사수료

0. 들어가며

발표자는 미아리의 피혁 산업이 산업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미아리가 전후 한국의 피혁산업의 요람이었음을 밝힌다. 이는 “공동묘지, 이주민 정착촌,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대표적인 “소외지역”인 미아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는데 분명한 의의가 있다.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탐구라 무척 반갑다. 즉, 발표자가 글에서 슬쩍 언급한대로, 미아리는 식민지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일용직노동자가 많이 살던 지역이었으며¹⁾, 해방 후에도 (1960년대 초반)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이며, 이에 대한 대처로 (현재의 시각으로) 저소득층/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아파트가 개발한 지역이다. 게다가 정릉천 주변의 무허가 주점이 (도심재개발/중심재개발의 영향으로) 성매매업소로 변화한 곳으로 소환되기도 한다.²⁾ 즉, 주거의 질은 낮지만, 임대비가 싸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이 드나드니 일용직노동자·성매매여성(이전의 표현으로 윤락여성)과 같은 도시-하위계층의 장소로 주목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로 미아리를 재인식해보자는 제안은 무척 반갑다. 여기에 조광피혁이라는 주체의 ‘기업사(企業史)’를 구축하려는 목표 또한 살며시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아리를 피혁산업의 중심지로 재의미화하고, 이 지역에서 성장한 조광피혁을 연구의 장에 선보이는 성과를 보인다. 그럼에도 토론자는 지역과 업종 및 기업에 대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조심스레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1. 미아리라는 공간의 피혁산업의 밀집

	피혁 및 피혁제품 사업체 수 (전체제조업 사업체수)	비중	성북LQ지수	서울LQ지수	전국LQ지수
1955	9 (35)	25.7%	1.709	14.834	37.604
1959	8 (52)	15.4%	1.176	12.340	34.406
1963	10 (116)	8.6%	2.020	9.446	19.980
1966	8 (169)	4.7%	1.953	5.954	11.689

[표 1] 미아리 내 피혁 및 피혁제품의 LQ지수(비교대상, 성북-서울-전국)

미아리를 두고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로 본다는 점은 무척 새롭다. 발표자는 “2. 미아리의 제조업과 피혁산업”에서 (기존의 ‘소외지역’이라는 측면보다도) 산업적 측면에 대해 주목하며, 서울의 공업지역이 여러 곳에 산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피혁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며, 1960년대 이후 중요한 수출산업의 행위자였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LQ(Location Quotient, 입지계수)³⁾를 이용해 미아리 지역의 피혁산업의 특화를 설명했고, 인접학문이 따르기 힘든 경제학이 축적해 온 ‘측정도구’의 강점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접근이다. LQ란 한 지역의 산업이 “특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지 지역 내에서 특정산업체(수)를 통해 그

1) 최인영(2009), 「동대문 밖 전차의 도입과 역할」, 『서울학연구』, 37: 96쪽.
 2) 사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3) 관심항목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Isserman(1977)이 경제구조와 분화(differentiation)를 평하하기 위해 고안했다. 즉,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서 해당산업의 지역 간 상대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으므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적더라도 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해당 산업이 입지계수가 의미하는 만큼 의미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없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제 사업체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물론 LQ지수를 서울과 전국으로 대상단위를 넓혀, 미아리 내에 있는 여타 제조업과 지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할 수 있겠으나, LQ지수의 하락을 볼 때, 실제로 서울 전체에서 피혁 및 피혁제품 사업이 어느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답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인다.

2. 미아리 내 피혁업체의 규모에 대하여

규모 \년도	1955년 (9개사)	1959년 (8개사)	1963년 (10개사)	1966년 (8개사)
5-9명	입성(7명)	입성	입성(5-9명)	입성(5-9명)
	합룡(8명)		삼풍(5-9명)	
	동흥(7명)	동흥		
		흥익		
			동성(5-9명)	
			공익(5-9명)	공익(5-9명)
			아주(5-9명)	
10-19명				유한(10-19명)
				대림(공업용, 10-19명)
	동방(17명)	-		
	조흥(13명)	조흥	조흥(10-19명)	
	흥안(12명)			
서울(12명)				
태풍(12명)	태풍			
20-29명	금강(12명)	금강	크리우(20-29명)	금강(20-29명)
		태창	태창(20-29명)	
200-299명		조광	조광(50-99명)	조광(200-299명)

[표 2] 1955-1966년 사이 미아리 입지 피혁업체 규모별 분류

종사자수 \년도	1955	1959	1963	1966
5-9	22		35	28
10-19	66		15	30
20-29	12		75	25
50-99			75	
200-299				250
	100		200	333

[표 3] 1955-1966년 사이 미아리 입지 피혁업체 종사자수 추정

[표2]와 [표3]은 발표자가 제시한 (표6)을 기초로 재구성했다. 1955년에서 1966년까지 5-9명 사업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10-19명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1963년과 1966년을 비교할 때, 20-99명 규모의 사업장이 3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으며, 조광이 200-299명 규모로 급성장한다. 각 단위의 중간치로 전체 종업원 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체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종사자의 증가분은 조광 피혁의 사업체 확장과 인력 수용으로 인해 이뤄졌다. 1966년에 이르러 조광피혁은 미아리의 피혁산업 종사자 가운데 75.1%(1966년 기준)을 채용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미아리 내 피혁업체의 특질에 대하여

발표자는 미아리 피혁업체 밀집의 형성과 성장의 근거로 “**업종의 편중**, 공간적 밀집, 조광피혁의 급격한 성장”을 든다. 그러나 읽어보면 산업과 자연적 특질의 연관의 이유만을 제기한다. “정릉천과 월곡천”이 합류하는 자리인 하월곡동 88과 하월곡동 90이 공장자리로 적절하다는 설명하나 보다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사로서의 설정을 강화한다면, 업종과 지역간의 관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 예컨대 업종과 지역내 원자재 수급의 관계, 교통의 편리 등을 고려한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⁴⁾ 그리고 나서 [표2]와 [표3]과 같이 조광피혁에 “의지”하고 있다는 특질까지 아우를 때, 보다 나은 논리를 갖추지 않을까 싶다.

4. 조광피혁이라는 회사의 기업사

정보를 수집해보니, 조광피혁을 연구대상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가 매우 흥미롭다. 재벌은 아니지만, 1990년대까지 신발과 가방을 위한 가죽가공 사업을 진행했고,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시트용 가죽가공 사업으로 세계 3위 규모로 평가받는 기업이며⁵⁾, 2010년대 들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평가⁶⁾를 받았던 기업이다. 무엇보다 “IMF 이후 … 재편되는 시장”에서 “적극적인 경영변신”을 성공한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니, (이전의 식민지기 회사 연구나 재벌연구와 달리) 존속 중인 (중견)기업사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다. 이 점에서는 미아리에서의 피혁단지의 성장 보다는 전면적인 기업사로의 전환을 꾀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한다.

조광피혁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질적인 성장을 가져왔을까? 발표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방법을 들고 있다. (1) 새로운 기술의 개발(가죽 발명), (2) 생산의 다각화(수직적 다각화, 제혁업과 피혁제품의 공정의 동시화)⁷⁾, (3) 새로운 유통망(백화점과 수출).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확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요인만으로 조광피혁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1)은 발표자의 말대로 진위를 알 수 없으며, 광고의 영향에 대해 선불리 말할 수 없다.

1960년대는 잘 알다시피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이뤄진 시기다. 더구나 정부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피혁을 지정한 게 1964-1965년의 일로, 조광피혁은 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출 정책에 동참하는 설비 확충과 인력 조정, 상품 개발 등을 했을 것이다.⁸⁾ 이는 추후에 군수산업에 참여하는데서 생긴 이익,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성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다. (발표

4) 우선 업종의 편중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제혁업체의 수가 줄어들지만 미아리 제혁업체의 수는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원자재 수급의 편의에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이 지역은 … 대표적인 가죽 산지”라고 흐릿하게 말하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문을 검색한 결과로 추정할 때, 현재의 창문여자고등학교(미아동 월계로 61) 자리 맞은 편 즈음에 한국축산가공(당시 대표 송회림)에서 운영하는 도축장(1969 폐쇄, 마장동 도축장은 1961년 신설)이 있었으며, 원자재를 바로 구입하기 좋은 하월곡에 피혁업체가 입주해 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자가 “미국 수입 원피에 원료를 의지하던 한국 피혁협회(21쪽)”라는 언급을 한 점과 상충될 수도 있다. 피혁업체의 지리적 입지가 당시 교통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떠올려 볼 때,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원피를 수급하기 쉬운 미아리에 영세업체들이 위치했었으며, 1950년대 내수시장에만 국한하다 1960년대,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아리의 입지는 되려 한계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원피 수급이 기준을 충족치 못했고, (작업장의 크기나 품질의 사정 등에 따라) 경부고속도로가 다니는 청주로 이전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다.

5) 「기업분석/가죽업 조광피혁」, 『Hyundai Research』, 2002년 5월 14일.

6) 「주식농부, 꼭 갖고 싶은 회사 ‘조광피혁」, 『중앙일보』, 2011년 8월 25일.

7) 1910년대 조선피혁은 “양질의 지하수와 편리한 교통”이라는 입지조건에 합당했으며, 무엇보다 철도인입선의 부설을 유도하여 설치됐다. 무엇보다 동양축산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 이때 “축산물의 공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둔 것을 볼 때, 피혁산업이란 화학공업의 일종으로 원재료를 입수하기 위한 1차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김명수, 2009, 「한말 일제하 카다가(賀田家)의 자본축적과 기업경영」, 『지역과 역사』, 25호: 27쪽, 37쪽.) 이는 이후 제혁업과 피혁제품 공정의 동시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 중요하다.

8) 이 역시 가정이라서 조심스럽다.

자의 연구는 지역과의 관계만을 그리려다 보니, 조광피혁이 실제로 성장하게 되었을 법한 계기가 따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1964년 AID차관의 유치와 베트남전쟁 특수는 조광피혁을 비롯한 (주로는 군수업체로 추정되는) 수출특화산업 업체의 성장과 해당 산업의 형성과정에 큰 역할을 피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제조업계의) 기술가 생산설비의 이전 상황 등에 있어 고려할 점은 없는지 등에 보다 집중하며, 1970년대 이후의 상황까지 살펴보길 간곡히 청한다.

5. 나오면서: 지역과 산업의 관계

연구자의 관심은 1960년대에 몰려 있다. 왜 1960년대 이전 서울에 주목할까? 연구자는 “이 시기에 이미 서울 …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 … 인구를 고려한 상대적 비중은 1970년대 이후를 上廻”했으며, “서울 제조업의 시원 내지 뿌리”라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1970년대의 회미한 전사(前事)를 밝히려는 의도로 읽히고, 한편으로는 (조광피혁의 본진이 1970년대에는 청주로 옮겨가기에) 지역과 피혁업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생긴 문제로 보인다.⁹⁾ 1970년대 이후의 지역의 긴 시간을 생각해보면 1950-1960년대의 미아리-피혁산업을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서울 혹은 전국의 피혁산업을 염두에 둔다면 재래적 방식의 피혁산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새 회사들의 인큐베이터는 아니었을까?

여기에서는 지역사와 기업사를 뒤섞어 마이크로 레벨에서 경제사를 펼치려는데 생긴 난점이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역과 특정 산업의 관계”를 밝히려는 문제 제기가 유효한지 다시 검토해보았으면 좋겠다. 현재의 작업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그룹과 울산광역시 동구의 성장,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규모의 조선소가 자리한 거제도의 성장(과 쇠락), 포항제철과 포항, 이러한 산업도시의 일면적 분석과 유사하다. 이러한 산업도시는 지역의 발전이 산업의 발전과 맞물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이라고 본다. 반면에, 미아리의 입지 형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피혁산업과 지역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아리의 조광피혁을 통해 미아리가 1960년대 피혁산업의 중심이라는 연구설정이 유효한지 보다 폭 넓게, 그리고 방향성을 유지하며 검토해보길 바란다. 1970년대 이후, 미아리의 피혁산업이 축소되었다면¹⁰⁾, 1950-1960년대의 피혁산업 집중의 가치가 무언지 설명할 필요로도 이어진다. 앞서 말한대로 새로운 상황은 사업체를 다른 자리로 이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 보루이자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 전무일 수 있다. 1970년대 조광피혁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하월곡동의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청주로 이동한다. 또한 하월곡동 88번지의 변화를 봐도 그러하다. “피혁업체 밀집지역→성매매업소 밀집지역”라는 변화도 그저 지나칠 수는 없다. 단순한 가십을 넘어, 업체의 산업의 지역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아닐까?

9) 이 문제는 앞서 지역에서 미아리텍사스의 정착과 함께 1970년대 이후 미아리의 특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낳기도 한다.

10) 제조업 특히 피혁산업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술 방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대성산업주식회사와 3개 회사가 기계를 도입하여 인조피혁 기계를 도입” 이지만, 1970, 『合成皮革 이야기』, 『월간 마아케팅』, 70년 8월호: 93쪽.) 이렇다면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입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열린다.